

# 「학업 유지」를 위한 『학생지원긴급급부금』 창설

## 배경·과제

-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가정내 수입이 심각하게 줄거나 아르바이트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.
-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올 4월에 새롭게 시작한 고등교육 수학지원제도 및 대출형 장학금의 가계급변대응, 대학 등의 수업료납부 연기 지원, 각 대학의 독자적인 감면조치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.
- 한편,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층 심각해짐에 따라 특히 집에서 독립한 학생 중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예상되므로,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.

➡ **향후 경제사회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<학업 유지>를 위해 필요한 <학생지원긴급급부금> 창설**

## 사업개요

### ○사업 포인트

- 특히 가정에서 독립한 학생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횟수가 줄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<학업 유지>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도감 있는 제도 설계
- 위의 학생의 경제환경에 대한 대책과 함께, 코로나19가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<학업 유지>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책과 연대

◇ **대상학생: 국공사립대학(대학원 포함)·단기·고전·전문학교** ※유학생 포함  
(일본어교육기관 포함)

가정에서 독립해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학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 중,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아르바이트 수입이 크게 감소해 대학 등에서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

◇ **급부액: 주민세 비과세 세대 학생 20만엔**  
**상기 이외의 학생 10만엔**

## 사업계획

